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 천도교신문



제185호(통권580호) 포덕 162(2021)년 12월 23일(목요일)  
 발행인 : 송범두 / 편집인 겸 주간 : 박인준 / 인쇄인 : 윤병업 / 발행소 : 천도교중앙총부

## “가슴에 포덕의 불을 끄지 말아야” -남해동학학술문화제 개최



남해동학학술문화제가 12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천도교중앙총부 주최, 인내천범국민의식개혁운동연합과 천도교남해교역자운영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남해지역 천도교인과 군민 이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해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재선 청년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술문화제는 박인준 총무원장의 개회사, 장충남 남해군수 환영사, 하영제 국회의원의 축사(서면), 송범두 교령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박인준 총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해는 많은 천

도교인을 배출했음에도 남해지역 동학연구는 부족했다. 이번 학술문화제를 계기로 역사적 진실에 한걸음 나아가자.”고 하였고, 송범두 교령은 격려사를 통해 “남해 천도교는 남해 동학에 근거하고 있다. 남해 지역 동학의 뿌리를 캐고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남해에서 천도교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자.”고 강조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남해동학 학술문화제를 또 준비하고 있다. 남해 천도교가 지역에 더 뿌리내릴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제1부 행사로 김철웅 악단의 공연은 피아노 연주(김철웅), 김민수·김형찬·엄지아·유준상의 독창과 합창, 김옥인 외 2명의 장고춤·부채춤·조가비춤 등 무용 등이 소개되었다. ‘심장에 남는 사람’, ‘압록강 2천리’, ‘임진강’ 등 북쪽의 정서를 담은 노래에 참석한 관중의 열띤 반응이 있었고, 천덕송 ‘한울 세상’과 ‘동방의 빛’도 연주되었다.

제2부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경상남도 지역과 남해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채길순 명지전문대 명예교수) ▶남해 지역의 동학 유입과 확산(성강현 동의대교수) ▶동학의 서부경남 봉기와 남해(문찬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동학과 천도교 발전에 기여한 남해인(송봉구 영산대 교수) 순으로 발표되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발표에는 채길순·성강현·문찬인 발표자가 남해 동학혁명의 사적지 등을 새롭게 조명하였고, 특히 남해에 ‘천도교 왕국’을 이룩한 천도교인으로 정재모·하준천·이천은·김명진·고정훈 선생의 삶을 송봉구 교수가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관련기사 4.5면)

### 포덕 163년 동계수련계획

#### 1.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총부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20, 11/4 공문발송) → 숙박 금지,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 행위 금지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교구/수도원의 개인/단체수련을 중단, 재가 방식으로 함.

#### 2. 동계수련 재가방식(1주일 특별기도)

- 1) 제목 : 포덕 163년 동계수련
- 2)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무병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수련하는 생활, 실천하는 신앙으로 침체된 신앙심을 회복하고 교단에 새로운 도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자 함.
- 3) 기간 49일(163년 1월 1일(토) ~ 2월 18일(금))

#### ■총부주관 7일 특별기도

기간 : 163년 1월 1일(토) 7일(금)

방법 : 오후 8시부터 1시간 수련 후 9시 기도식[재가기도] ※ 온라인 특별기도 방송을 시청하면서 재가기도

■개인수련 기간 : 163년 1월 1일(토) ~ 2월 18일(금) 중 7일 또는 21일 등(개인이 정함) - 방법 재가기도(개인이 정함)

■심고문(※ 예시문으로서 개인 실정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것.)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희들은 ‘모시고 새롭게’를 기치로 신앙회복과 포덕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괴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계수련(특별기도)을 봉행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울님과 대신사님의 특별한 감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코로나19 괴질이 해소되어 하루빨리 이 땅 위에 모든 이의 건강함과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훌륭하게 성취되어 행복한 한울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심고합니다.

보신 새종계	교단 주요 동정
●12월 9일	- 부산대동교구 신축봉고식(교령 격려사)
●10(월)	- 남해동학학술문화제, 남해문화회관(교령 격려사)
●14(화)	-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교령사 예방
●18(토)	- 종의원 정기총회(교령 격려사)

**[사설]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100주년 기념행사에 부쳐**

12월 24일은 124주년 인일기념일이다. 인일기념일은 아시다시피 천도교 제3세 교조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이다. 중앙총부에서는 이날을 맞이하여 중앙대교당 건립10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중앙대교당 건립은 의암성사와 3.1독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친한 한 의암성사는 경운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대교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강한 교세를 바탕으로 특별성금에 의한 건립자금 모금에 들어가서 수백만 원을 조성하였다. 일제는 이를 독립자금으로 의심해 끈질기게 방해하였지만, 3.1독립운동이 추진되자 의암성사는 성금의 절반 이상을 독립선언서 인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해외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케 했다. 중앙대교당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약 2년 후에 완공하였다. 이곳을 무대로 1920년대 『개벽』으로 대표되는 언론출판운동,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 청년여성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1926년의 6.10만세운동, 1927년의 신간회운동, 1938년의 무인멸왜기도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중앙대교당은 천도교 정신의 고양과 발현처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산실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대단하다. 특히 교인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00년이 지나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스승님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선도들의 뜻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세세년전 전하고자 대교당 앞뜰에 기념비를 세우고 타임캡슐을 매설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도 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임에도 교인들로부터의 성금을 모금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한 중앙총부 직원들의 수고도 컸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00년이면 세상은 대일변한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중일변하고 중일변이 가득 차면 대일변이 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기억하는 기간은 길어야 80년이다. 그래서 80이 넘으면 남의 나이를 산다고 했다. 각종 기록과 인쇄의 보존 한계를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다행히 복사술의 발전과 각종 보관술의 진보로 소중한 자료들을 더 오래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사 중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100년 대교당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앞으로 100년, 아니 오 만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다. 또한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것은 100년 후의 후학들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생각, 모습, 그리고 기대와 바람을 전하기 위해서다. 100년 후의 후학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가? 그 첫째는 아무래도 천도교 중흥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은 천도교 중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천도교 중흥 아니겠는가? 둘째는 100년 후 우리의 후학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동귀일체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일로매진할 것이리라. 동귀일체와 천도교 중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선후가 없지만, 다만 이 일을 100년 후학들은 훌륭하게 이루어 내리라 기대한다.

이런 일이 하나의 이벤트성을 지닌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그 뜻을 살려 오늘 우리의 삶이 먼 미래의 후학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한 점 부끄럼 없는 천도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행사를 통해 모든 천도교인이 동귀일체를 이루어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대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교령사 예방(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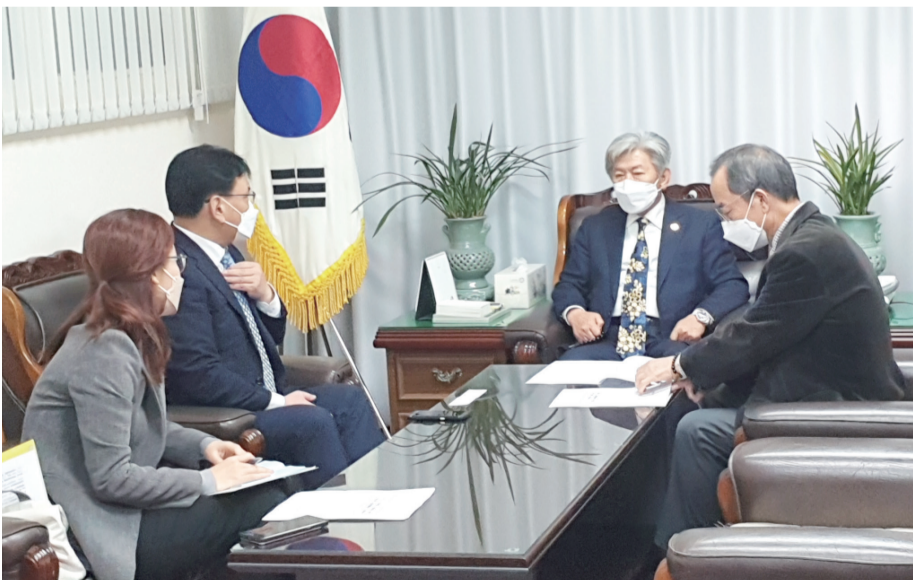
문종선 월간 서예문화 발행인 교령사 인터뷰(12.7)



종의원운영위원회(12.8)



기관연석회의 경주 '수운기념관과 교육관' 위탁운영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 (12.9)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교령사 예방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협조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논의(12.14)서형수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이 교령사를 내방하여  
비혼 인구의 증가에 따른 출산률 저하에 대해 논의 하였다.(12.16)이재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령사를 내방하여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해월신사 생가터복원사업예산안'이 미동과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 5월 정기예산안에서는 상정할 것을 다짐. (12.17)

# 천도교 대동교구 낙성봉고식 개최



대동교구(교구장 장인갑, 부산 남구수영로135-2) 낙성 봉고식이 12월 12일 오후 1시 송범두 교령, 박재범 남구청장 등 1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코로나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된 봉고식은 정덕재 교무부장의 집례로 테이프커팅에 이어 청수봉전(효성당 천도영 선도사), 경과보고(탁암 성강현 직접도훈), 식사(수암 장인갑 교구장), 봉고문 낭독(하수희 여성회장)에 이어 교구 낙성식에 공로가 큰 분들에게 포상이 이어졌다.

송범두 교령은 장인갑(교구장) 유재원(전 대남교구장) 강병로(동천교 교장) 구옥주(경리부장) 유성재(사회문화부장) 김종권(선도사) 하수희(여성회장)에게 공로패를, 장인갑 교구장은 김종원·최종환 두 분에게 교구장장을 포상했다.

송범두 교령의 격려사에 이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정의맹 연원회의장, 김희수 경상도연원회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천덕송(공락가) 합창 후 폐식하였다.

## 천도교대동교구 건축 경과

○포덕 93년(1952) 4월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인 홍암 나인협 선생이 남구 대연동 1600-464번지 범디산에 안장됨. 월남한 북한 천도교인들이 홍암선생의 묘소가 있는 대연교개에 모여 홍암 선생의 묘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감.

○포덕 103년(1962) 9월 평북 희천 출신의 김영도 선도사는 대연동 1600-260번지 일대 54평의 땅을 회사해 대연전교실을 개설하여 홍암선생의 묘지 관리와 신앙의 구심점을 세움.

○포덕 112년(1971) 대연직접전교실로 독립.

○포덕 119년(1978) 대연교구로 승격.

○포덕 146년(2005) 대연교구가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 편입, 재개발조합으로부터 150평 대토, 75평 매입 교당부지 총 225평을 확보(교당부지 금액: 9억2250만원)

○포덕 157년(2016) 7월 대연교구와 남부교구가 통합해 대남교구 출범. 교당신축을 대비하고 있었음.

○포덕 160년(2019) 경상도연원 관내의 순의포, 순원포, 남정포의 교인으로 구성된 천도교동부산교구는 교당 매입을 준비하다 대남교구의 교당부지 확보 소식을 듣고 교구 통합으로 교단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후 두 교구에서 논의 시작

○동부산교구는 포덕 110년(1969) 5월 2일 영도교구 창설로부터 시작(초대 교구장 현암 김예환)함. 포덕 122년(1981) 연산동으로 이전하면서 교구명을 동부산교구로 개칭해 역동적인 신앙 생활로 부산 및 천도교단의 주목받는 교구로 성장.

○포덕 161년(2020) 1월 대남교구와 동부산교구를 통합해 천도교대동교구로 출범하기로 결정. 초대 교구장에 수암 장인갑 전 동부산교구장으로 선임.

○포덕 161년(2020) 3월 교당건축위원회 발족(위원장 장인갑, 유재원). 토지는 대남교구에서 확보, 교당신축기금은 동부산교구 재원 5억 원과 대출금으로 신축 결정.

○포덕 161년(2020) 8월 16일 대동교구 교당 신축 기공식(건설사 ㈜오매종합건설)

○포덕 161년(2020) 2월 10일 신축교당 준공(부산남구청의 사용허가서)

○포덕 162년(2021) 3월 1일 3.1절 기념식 봉행 대동교구 공식 일정 시작.

○포덕 162년(2021) 10월 1일~11월 3일 홍암 나인협선생특별전시회(부산남구청 2층)

○포덕 162년(2021) 12월 12일 대동교구 낙성봉고식

## 포덕 163년도 인내천 장학생 선발 안내

천도교인이 천도교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으로 시작한 『인내천 나눔』이 7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인내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 선발안내

대상 : 교인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약간 명

장학금 : 대학생 각 100만원, 고등학생 각 50만원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교구장 및 도정 추천서

신청기간 : 포덕 163년 2월 10일까지

문의 및 접수 : 신인간사, 인내천나눔 (총무 서종환 010-2713-3601)

### 포덕 162년도 인내천나눔 참가회원

방태수(문화예술인) 이창건(강서) 이동훈(양주) 석현민(문화예술인) 최상은(영등포)

박정현(영등포) 정경숙(영등포) 서종환(영등포) 서해원(영등포) 서경원(영등포)

서민중(청원) 김성수(마산) 조용순(마산) 방임현(의정부) 성강현(동천) 주선원(한강)

라명제(송탄) 라일선(마포) 이흥자(마포) 김산(마포) 김순자(사천) 김춘옥(문화예술인)

김민경(부안) 김춘성(문화예술인) 박경희(대동) 구옥주(대동) 박종구(울산)

대학생단후원회

※ 회원의 회비는 오직 장학금으로만 사용됩니다.

회비계좌 농협 352-0931-7940-23 방태수(인내천 나눔)

『인내천 나눔』 회장 방태수 심고

## 포덕 163년 어린이시일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관 : 낙안회 / 후원 : 천도교 중앙총부

일시 : 포덕 163년 1월~12월 둘째주 일요일

장소 : 온라인(신청자에게 ZOOM 링크를 공유)

내용 : 11시 어린이시일.

11시 30분 신나는 활동.(30~40분 소요)

신청 : 010-9275-8060

(문자로 소속교구, 이름, 학년, 우편물주소를 보내주세요)



## 남해동학학술문화제

지난 12월 13일(월) 개최한 '남해동학학술문화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실



### 남해지역 동학혁명 주요 사적지와 '우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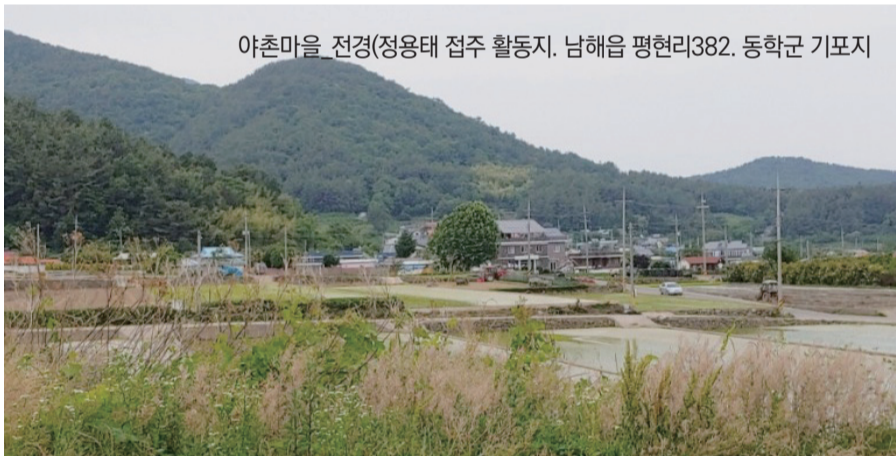
채길순 명지전문대 명예교수



남해군 남면 당항리 우형마을의 윤자신(1924년생), 천도교 고현교구 도정을 지낸 정도일 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해의 동학혁명 시기에 '우우통'이라는 말이 있었다. '우우통'이란 동학혁명 시기에, 동학군이 봉기하여 악질 관료와 지방수령을 끌어내어 짚등치에 실어 노량(설천면 노량리) 앞바다에 띄워 응징하는 형벌로, 우우통의 발상지는 남해군 남면이다.

남해 동학군은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해 기왕산 임진성을 점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느 시기에 점령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일본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고승당산 전투 전후 시기로 보인다. 임진성은 민보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막기 위하여 군관민이 힘을 모아 쌓은 성이라 붙인 이름이다. 남해의 동학관련 주요 사적지는 다음과 같다.

▶동학군 집결지: (현, 남해군 남면 죽전마을) 남해 관아를 치기 위해 남해군의 동학군이 죽전마을에 집결. ▶임진성 동학군 주둔지: (현, 남해읍 남면 상가리, 경남도 기념물 제20호) 남해에서 모인 동학군이 인근 투쟁지로 이동. ▶남해 현청 점령 터: (현,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1894년 9월 11일 동학군이 관아를 점령하여 옥에 갇혔던 동학교도를 석방. ▶남해 접주 정용태 활동지: (현, 남해읍 평현리 382, 야촌마을, 마을회관) 동학군을 이끌고 기포.



야촌마을 전경(정용태 접주 활동지, 남해읍 평현리382, 동학군 기포지)



임진성\_동학군이 주둔한 곳



죽전마을\_동학군 집결지

### 남해의 동학 유입과 확산

성강현 동의대 교수



남해의 동학 유입은 교조신원운동이 한창이던 1893년에 이루어졌다. 진주부 삼장 출신의 백낙도는 1892년 장수군의 유해룡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았다. 백낙도는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동학을 전파하였다. 다시 백낙도로부터 도를 받은 손은석은 1893년 남해군 야촌에 살고 있던 여장협에게 도를 전해준 것이 남해 동학사의 시작이다. 여장협은 김화순·이종묵·정용태 등을 입도시킨 후 정용태를 남해접주로, 이종묵을 대정으로 추천해 남해의 동학교단을 설립한 후 하동으로 건너갔고 뒤에 하동접주가 되었다.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1894년 8월 28일 하동읍성 점령을 위한 통문을 내었고, 통문을 받은 여장협은 남해접주 정용태에게 하동읍성 전투에 남해 동학군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용태는 8월 29일 남해 동학군을 소집하였다. 남해 동학군은 섬진강을 이용해 하동의 광평들에 상륙하여 민보군과 관군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들을 몰아내고 하동읍성을 점령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후 남해 동학군은 9월 11일 영호동학군과 함께 남해로 들어와 관아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남해의 동학군은 하동 고성산 전투와 광양의 섬지역 전투까지 가담해 많은 희생을 내었다.

남해의 천도교는 동학혁명과 진보회 이후 쇠잔해진 교세를 김일문, 김성준 두 분의 신앙을 기초로 1910년대 입교한 하준천, 1920년대 초 입교한 정재모와 정훈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23년에는 면종리원이 신설되었고, 1927년에 남해군 종리원으로 승격되었다. 이 시기 정재모는 사재를 털어 고현면 이어리에 남해전교실을 건립하였다.

남해군종리원은 승격 이후 남해 천도교는 폭발적 교세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천도교창건록』의 교인 명단에서도 나타난다. 1927년부터 1931년까지 5년간 30명이 입교하는 마당 포덕이 이루어졌다. 남해군종리원은 '포덕회'와 '청년당지부'를 설치해 교세 확장에 대응했다. 그 결과 남해는 종교 가운데 천도교가 가장 큰 교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교세에 걸맞은 교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37년 설천면 비란리에 새 부지를 매입해 교당을 신축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수난기에 남해의 천도교는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이 천도교에 입교해 주도적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해의 의식 있는 인물들은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민족정신을 익히고 민족의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수천 호가 마당포덕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세의 확장으로 해방 이후 남해군에는 남해, 선구, 고현, 포상 등 4개의 교구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구 이외에도 지역별로 전교실이 만들어져 늘어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남해 천도교의 발전은 교조신원운동, 동학혁명, 진보회, 3.1독립운동 등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동학-천도교의 개혁사상이 밑거름이 되었다.

\*\*질의응답 : 성강현 교수는 여장협 접주는 사료에 따르면 남해읍 야촌 출신이라고 했고, 여장협 접주 후손이라 밝힌 참석자는 여장협 접주는 설천 진목 출신으로 남해읍 야촌에서 서당훈장을 하였다고 전하여,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 남해 동학 천도교의 과제

문찬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9세기 말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든 동학혁명의 시대적 의미를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야 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동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야 하는가? 우리 주변의 국제 질서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미·중간의 패권갈등에서 동학의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천도교, 동학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의 과제는 동학농민혁명의 2차봉기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국가적 서훈을 이루어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두 법률 조항으로 볼 때 동학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국가적 서훈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훈 신청이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1894년 갑오왜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1894년 6.21(양 7.23) 새벽 4시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고종을 겁박하여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경장이라 불리는 단발령, 흑의령(黑衣令) 등의 조치와 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 갑오왜변부터 사실상 국권침탈의 시기다. 갑오왜변이 동학혁명

군의 2차봉기와 갑오의병을 일으킨 원인의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동학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 번째는 동학의 궁을촌 남해의 역할이다. 동경대전 중 논학문에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다”, 즉 천도와 동학은 한 몸이다. 남해와 동학 역시 한 몸이다. 동학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널리 받아들인 곳이 남해이다. 남해는 천도교의 큰 저수지였다. 호남에서 동학이 봉기하였으나 그 도맥은 서부경남의 남해가 이어왔다. 지난 세기가 동학의 후예를 보존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는 동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동학을 더 키우고 더 새롭게 하는 것이 남해의 역할이다.

동학 천도교 발전에 기여한 남해인

송봉구 영산대학교수



목암 신용구 선생님이 경상도로 포덕하러 갈 때마다 의암성사는 목암선생을 불러 ‘가슴에 불을 끄지 마라’고 일러 주었다고 한다. 이 말씀은 결국 너의 가슴에 한울님이 살아 계시니 그 힘으로 포덕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계승한 목암 선생님은 포덕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과 수모를 겪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60만 포덕을 하였다. 목암 선생님은 새로운 농사짓는 법을 스스로 공부하거나 깨우쳐서 농민들에게 알려주었고, 다음으로 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을 몰랐던 사람

들에게 선생은 사상의학을 공부하여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처방전을 들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먹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도교의 진리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을 외울 때 먼저 8자 주문을 외워 강령을 하게 하여 자신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심정기’가 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한울님처럼 모시게 되는 ‘사인여천’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삶을 실천하여 남해에 가르침을 펼치자 남해의 중앙 정재모, 회암 하준천, 추암 이천운, 우암 김명진, 정암 고정훈 선생이 목암 선생의 ‘사인여천’ 가르침을 계승하여 남해 사람들에게 포덕을 하게 된다. 다섯 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신의 삶보다는 천도교의 진리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과 집을 천도교 포덕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자신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포덕을 하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넘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정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천도교의 교세가 너무 약해서 세상 사람들은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해는 천도교 왕국이라고 불렸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일까? 결국은 목암 선생님과 다섯 분 선생님들의 ‘수심정기’와 ‘사인여천’ 가르침을 다시 계승한다면, 천도교는 다시 이 땅에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2월 24일,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비 제막 타임캡슐매설

###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비〉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大告天下)한 의암 손병희 성사는 1916년 이곳을 매입해 중앙대교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중앙대교당 건립 성금 모금을 독립자금으로 의심해 방해하였으나 의암성사는 특별성금 수백만 원을 조성하였다. 의암성사는 31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건축 성금의 절반 이상을 독립선언서 인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해외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일제의 방해로 최초 계획의 1/3 규모로 축소 건립한 중앙대교당은 1921년 4월 5일 천일기념식을 봉행하면서부터 상설 운영되었다. 중앙대교당은 서울의 3대 건축물로서, 특히 민족자본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의의도 크다. 1920년대 『개벽』지의 출간과 함께 언론출판운동, 어린이운동, 농민운동, 청년 및 여성운동이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중앙대교당은 1926년 6·10만세운동, 1927년 신간회운동, 1938년 무인멸왜기도운동 등 독립운동의 발원지로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천도교 정신이 현현(顯現)된 장소이다.

오늘 역사적인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을 맞아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100년 전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 기념비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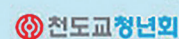
포덕 162(2021)년 12월 24일(금)



중앙도서관 기증자료(포덕 161~162년)		
포덕 161년		
기증자	도서명(내용)	수량
이동초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집	2
	사진, 문서, 원고 기타 교회자료(박래원 종법사보관)	20여점
김응조	'개벽과 동학혼 상.하'-김응조	2
이창번	교회관련 도서 및 수집자료 파일	10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 외 학술자료집	8
이영노	'천도교초기의 글 모음' 외 저작 도서 다수	30
이정운	'경제근대화과 전환기의 지식인'-이정운	1
류윤근	천도교관련 수집자료	50여점
정현숙	'차상찬연구'-강원문화교육연구소	1
박길수	'100년 촛불'-손석준	1
최영길	'여암문집 상.하'(확대복사본)	2
두레 출판사	'수운 최재우평전'-김삼용	2
생각정원 출판사	'나라말이 사라진날'-정재완	2
포덕 162년		
박용규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서훈의 정당성'	1
김용옥	'동경대전 1. 2' 외	4
김정희	'정순철동요집의 음악적 연구' 외 발표논문 자료집	4
주영채	'유학사상과 동학의 비교연구'(논문집)	1
김응조	'연암 김재중종법사 일대기'	1
김정신	'한국의 교회건축' 외 저서	3
박병훈	'한국근대 신종교가사 연구'(논문집)	2
김시형	'생명.인간 그리고 나의 모습'	2
조성린	'종로의 학교'-종로문화원	1



**천도교청년회, 포덕 163년 탁상달력 판매 개시**  
 천도교청년회에서 포덕 163년도 새해 탁상달력을 한장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달력은 다가오는 다가오는 어린이날 100주년(천도교 기준 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의 유래를 귀여운 일러스트로 담은 달력입니다. 탁상달력도 구매하시면서 청년회 후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달력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12월 말일까지 언제든 천도교청년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수령 시 : 5,000원/부  
 \* 택배수령 시 : 8,000원/부(수량 추가시 5,000원 추가)  
**문의 : 천도교청년회 사무국(02-736-5660/010-7172-5660)**  
 후원계좌 : 우리은행 513-240146-13-101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성금 (162.12.21)		116주년 현도기념	
대동교구	1,050,000	장수갑 대동	100,000
유재원 대동	300,000	정의수 부산시	100,000
김종권 대동	200,000	한울연대	100,000
송장호 동서울	200,000	박현빈 서울	50,000
울산시교구	200,000	박현서 서울	50,000
장인갑 대동	200,000	김계영 동천	30,000
김경애 동천	100,000	<b>116주년 현도기념</b>	
박길수 서울	100,000	김도균 원주	100,000
소경희 서울	100,000	김산 마포	100,000
신원기 동천	100,000	수원교구	100,000
양숙자 부산시	100,000	고정섭 황화	50,000
이동초 서울	100,000	김정호 마포	50,000
		박남준 동서울	50,000
		박징재 서울	50,000
		박차귀 여성회본부회장	50,000
		심점례 도봉수유	50,000
		이흥자 마포	50,000
		한광도 서울	50,000
		박명옥 대전	30,000
		전명운 시흥	30,000
		김정숙 서울	20,000
		이순옥 인천	20,000
		주영선 한강	20,000
		함형숙 춘천	20,000
		이승규 영등포	10,000
		이재선 전주	10,000
		조광수 영등포	10,000
		무기명	10,000

## 서울교구 합창단, 제2회 남북평화합창제 참여



고양시 종교인들이 종파의 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주최하고 고양종교인평화회의가 주관한 제2회 남북평화합창제가 12월 7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렸다.

‘봄은 다시 온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음악회에 참가한 천도교(서울교구합창단),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5개 종단 합창단은 평화와 통일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이번 공연은 고양시와 고양신문 후원으로 열렸고, 탈북민으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도 본단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를 불러 객석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출연한 120여 명의 단원이 모두 한 무대에 올라 ‘홀로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웅장한 연합합창으로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고양종교인평화회의의 공동대표는 천도교 주선원 선도사, 개신교 강경민·장향희 목사, 불교 종후·정각·철산스님, 천주교 이은형·남덕희·황주원 신부, 원불교 문향희·김순명 교무가 맡고 있으며 유재덕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이미에)

## 해월신사 최시형 묘소

### 경기도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대회 개최

- 해월신사 묘소 등 여주 동학유적지 사전답사도 진행



여주시에서는 지난달 11일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주관(이사장 김진오)한 2021 동학학술대회가 썬벨리호텔 세종홀에서 열렸다. 해월 최시형 묘소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며 아울러 여주 동학의 정신사적 흐름과 역사를 소개하고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조강연에서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는 ▶‘해월 최시형의 삶과 사상’이란 주제를 통해 “당시 애달픈 삶을 살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해월 최시형의 가르침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와 생명의 문제,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야기 되는 갈등과 분열을 조화과 균형으로 이끌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투지역(신영우 충북대명예교수) ▶유교 지식인 매천 황현의 동학 비판과 민중관(왕중현 연세대교수) ▶고교학점제 하 지방사교육과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서술방향(김태웅 서울대교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과제와 전망(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지난달 8일에 진행된 여주 동학유적지 사전답사는 흥병기 대접주 포소(금사면 이포리), 해월신사 묘소(주목리), 임학선 대접주 포소(능서면 신지리), 천도교 여주교구 등을 방문하였다. 학술대회 녹화화면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최인경)

## 동학운동과 21세기 인권 강좌 개최



2021부산인권문화제에서는 동학관련 특강 두 강좌가 열렸다. 12월 10일, 부산인권포럼 용성장독서모임,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에서 함께 주관한 특강은 부산금정구의 용성리마도도서관에서 ▶동경대전과 21세기 인권(한현석 동학운동가) ▶2차 동학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 정당성(박용규 동학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이 발표되었다.(김영진)

## 경주 황성공원 해월신사 최시형 소개 안내판 설치



지난 11월 11일, 해월신사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경주동학문화창작소가 기획 제작하여 황성공원 해월신사 동상 옆에 세웠다. 도을 김용옥이 안내판 문구를 쓰고, 제작비는 천도교 용담교구, 경주교구, 시민기금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용담교구 김성표 동덕은 경주 시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경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곳에 꼭 들러서 글을 읽어보고 서양의 종교사상을 뛰어넘은 우리의 위대한 사상 동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다.(글:사진/김성표)

## 박남문 동덕 국민훈장 수여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자문위원인 포항교구 박남문 동덕이 12월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장을 받았다. 천도교청년회 중앙본부 회장을 역임한 박 동덕은 민주평통 활동을 통해 청년통일운동 활성화, 남북한 청년교류협력, 지역기관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포항교구)

## 2021동학문화해설사 2기 과정 모집 완료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단장 최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주관, 천도교중앙총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동학문화해설사 2기 과정을 개설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수강생 30여 명을 12월 중순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강의를 진행하였다. 수업방식은 유튜브영상 수업 후 댓글 출석 및 리포트를 제출하면 된다.

## 제3회 남원동학문화제 개최



제3회 남원동학문화제가 12월 11일 학술대회, 16일 동학문화제로 나뉘어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용담검무보존회남원지회 주최, 남원동학문화제추진위·한빛무예단 주관, 전북도·남원시·남원문화원 등의 후원으로 열린 문화제는 11일 학술발표회에서 ▶남원의 동학과 검무 그리고 민족운동(성주현 숭실대교수) ▶용담검무 보존과 활성화 방안(성강현 동의대교수) ▶남원동학·동학혁명과 김개남(한병옥 남원정신연구회회장)이 발표되었다. 16일 문화제는 용담검무, 전통무예, 궁중의상쇼 등 ‘동학한마당’이 펼쳐졌다.(글:사진/ 장효선)

## 포덕 162년 천도교 10대 뉴스



중앙대교당건립 100주년 기념



천도교소년회 창립 100주년 기념(2.18)



경주 '수운기념관과 교육수련관' 마무리(8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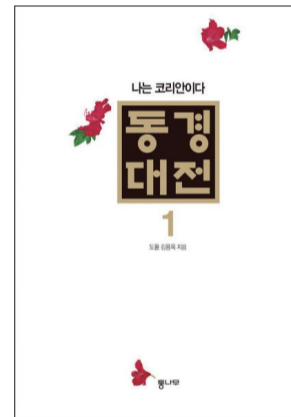
울산 여시바윗골 내 동학관(가칭) 건립(7월말)



남해동학학술문화제(12.3)



동경대전 주해본 발행(윤석산·김용욱교수)



'제 2차 인내천 서예 명인 모심전' 개최(9.22~28)



동경대전 재미중추반 간행터 표지판 설치(5.10)



당진대도소 복원사업 가을에 준공(9월)



흥남 나인협 선생 기념전시회(10.1~11.3)

## 의암성사 일대기 동영상 온라인으로 방영

천도교 중앙총부(교령 송범두)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동학·천도교 교조 씨리즈 3탄 <동학과 3.1운동-의암성사 스토리>를 12월 말부터 천도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이 동학 학습용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2019년 <동학의 탄생-수운 최제우 선생 일대기>, 2020년의 <동학의 발전-해월 최시형 이야기>에 이어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의암성사의 일대기를 다뤘다. 세부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01 의암성사의 보국안민 정신과 용서용화/ 02

탄생과 유년시절/ 03 입도 후 의암성사/ 04 수행과정-해월신사와 49일 기도/ 05 의암성사의 말씀과 저술/ 06 국권상실과 3.1운동 준비/ 07 천도교의 미래 등이다. 본 동영상은 천도교의 3.1운동 준비와 전개 과정 그리고 그 후 천도교가 상해 임시정부를 필두로 한 많은 애국지사의 독립투쟁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과 일반인 등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후천개벽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울림을 안겨줄 것이다.



## 3.1운동 102주년 천도교 중앙대교당 100주년 문화제

천도교 중앙대교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온라인으로 방영됩니다. 동덕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방송 : 천도교 유튜브 방송(온라인 비대면 공연)

일시 : 2021.12.23.11:00부터 게시

대담자 : 황두진

건축가, 예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황두진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사회자 : 조은아

피아노 연주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졸업,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휘자 : 차웅

2017년 제10회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 1위 없는 2위

공연단체 : 코리아콥오케스트라 스트링 20명(6-5-4-3-2), 오보에 1명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코리아콥오케스트라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라의 위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연주활동을 추구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성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고양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시오페라단, 유니버설발레단 등 주요 예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초청을 받아 매해 90여 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는 물론, 다양한 무대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기여

공연목록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슈베르트(말러 편곡), 죽음과 소녀 1악장

전래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나운영, 의암성사추모곡

로버트 플랑케트, 상브르와 뫼즈 연대 행진곡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 1악장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136 전 악장



주최·주관 :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 서울특별시